

<모여봐요, 문학의 숲>

- ▣ 연출 및 지도 : 차은선
- ▣ 출연자 : 김수현, 노본선, 정영길, 양미영, 임선연, 윤종서
- ▣ 등장인물 : 너구리 , 아이토끼, 엄마토끼, 돼지, 강아지, 바위, 올빼미 박사

*음악이 흐르며, 하루를 시작하는 동물주민들의 모습 보여진다.
서로 인사도 하고 각자의 일을 하고 있다. 그때, 공무원 너구리 등장한다.
커다란 바위 앞에 위치한다.*

너구리 : 자자~ 모여주시오구리!

*동물들 바위 앞으로 자리잡기위해 이리저리 움직이며 설만한 자리를 찾는다.
쉽지 않다. 겨우 자리를 잡고 너구리 말을 시작한다.*

너구리 : 아주 아주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다구리구리.
돼지 : 갑자기 무슨 일이나 꿀!

강아지 헐레벌떡 뛰어들어온다.

강아지 : 잠깐만요! 잠깐만요!

동물들 겨우 잡은 자리에 강아지가 들어올 틈이 없자 다시 자리를 찾

는다.

돼지 : 왜 지각을 하고 그러냐 꿀!

강아지 : 저 바위 때문에 돌아오느라고! 미안미안!

강아지, 주민들에게 사과한다

주민들 바위를 한번 보고 다들 이해한다는 듯 반응한다.

아기토끼 : 이 바위를 밟고 넘어오면 금방 왔을텐데

아기토끼, 바위를 밟으려 하자 사람들 화들짝 놀라 아기토끼를 막는다.

동물들 : 안돼~~!

엄마토끼 : 아가야! 이 바위는 함부로 밟으면 안되는거야

아기토끼 : 왜요?

돼지 : 음.. 훼손하면 안된다 꿀!

너구리 : 바위는 그냥 멀리서 눈으로만 봐주길 바란다구리

강아지 : 그나저나 도대체 뭣 때문에 모인 거래?

엄마토끼 : 이런 적은 처음인 거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?

아기토끼 : 엄마 너무 배고픈 데 그냥 집에 가면 안 돼요?

엄마토끼 : 아가야~ 마을 일에는 함께 참여해야 행복한 마을에서 살 수 있는 거란다

아기토끼 : 네! 엄마! 우리가 마을의 주인이니깐요! 맞죠?

다른 마을 사람들, 흐뭇하게 이들의 모습을 보고 미소 짓는다.

강아지 : 얼른 말해봐요!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?

너구리 : 앞으로 마을마다 등급을 매긴다고합니다구리!

너구리의 말에 사람들 모두 어리둥절해진다!

돼지 : 뭐? 무슨 등급? 꿀!
엄마토끼 :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?
아이토끼 : 으앙~ 어려워!
강아지 :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을의 등급은 몇 점입니까? 멍!
너구리 : 동물 마을의 등급은 바로!

두구두구두구 효과음.

너구리 : C등급입니다구리!
돼지 : C등급이면 높은 거냐 낮은 거냐 꿀!
너구리 : 안타깝지만 굉장히 낮은 등급입니다구리!

두둥.

주민들 모두 걱정애 빠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며 고민한다.

아이토끼 : 좋은 생각이 났어요!
우리가 C등급을 받은 원인을 찾아내서 해결하면 되잖아
요!
엄마토끼 : 아니 애 좀 봐! 우리가 그걸 어떻게 찾니! 우리가 전문가
도 아니고
강아지 : 우리는 할 수 있는게 없어
아이토끼 : 이곳의 주인이 우리라고 했잖아요!
그럼! 당연히 우리가 가장 잘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?

마을사람들 고개를 끄덕인다.

돼지 : 꼬꼬마! 아주 맞는 말만 하는데?! 꿀!
강아지 : 그럼, 원인을 찾아서 그 해결책을 찾아 마을 점수
를 올려보자고
너구리 : 지금부터 함께 찾아볼 시간입니다! 원인을 찾음과 동시에,
각자 할 수 있는 노력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!

주민들 원인을 찾겠다는 듯 수색하는 모양새로 각자 자신의 구역으로
흩어진다.

고민에 빠진 동물들 각자 답을 찾은 듯 움직이기 시작한다.

**우리 함께 찾아보세 발전하는 우리 마을
원인 찾아 해결하면 높은 등급 받겠지!**

옹다구나 맛집 최고
아냐아냐 건물 높여!
꽃과나무 잔뜩 심자
아이들을 위해서

먹자 골목 손님가득
삐까 뽀쩍 높은빌딩
요즘 대세 자연친화
살기 좋은 우리마을

**여기 고쳐! 저기 고쳐! 발전하는 우리마을
여기 쌓아! 저기 올려! 높아지는 마을등급**

살기좋은 우리마을

음악이 멈추면 주민들 다시 큰 바위 앞으로 모여 선다.

너구리 : 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구리 모두가 기다리던 시간입니
다구리!

이제는 우리 마을이... 한눈에 봐도 굉장히! 멋있...흠...릉....
마을사람들, 너구리의 시선을 따라 함께 시선을 돌리고
조화롭지 않은 마을을 보고 당황한다.

너구리 : 음음!! 자자자 아직 등급 발표가 남았습니다! 그럼 지금부터 마을의 등급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

두구두구, 긴장된 소리 흐른다.

짜짠-!

등급 발표에 사람들 모두 황당하다.

엄마토끼 : 저...저...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?

강아지 : 우리가 그렇게 사고생~ 사고생을 했는데!!! F라고!!!

돼지 : 도대체 F등급이 높은 거냐 낮은 거냐 꿀!

너구리 : 안타깝게도 최하 등급입니다...

동물들 : 뭐라고?!

마을 동물들 모두 실망한다.

돼지 : 맛집이 저렇게 넘쳐나는데! 이상하다 꿀?

강아지 : 그러니까! 높은 건물들을 잔뜩 지으니 사람들이 투자하려고 난리인데

엄마토끼 : 도대체 왜그런거죠? 이유는 알 수 없나요?

너구리 등급판을 뒤집자, '부조화'라고 써있다.

엄마토끼 : 역시 우리 마을 등급이 낮은 원인은 딱 하나였네요!

돼지 : 어서 말을 해보게 어서어서! 꿀!

엄마토끼 : 그 이유는 바로! 저 쓸모없는 바위 때문이었어요!

돼지 : 에이~ 그래도 저건 보물이라고 보물!

엄마토끼 : 저게 왜 보물인데요?

강아지 : 그거야!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 마을에 있었으니까!

엄마토끼 : 네!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되나요

돼지 : 그게 그러니까...

강아지 : 도움 되는 게 있긴 할 텐데...

주민들 명확한 이유를 말하지 못한다.

엄마토끼 : 이것 봐요! 다들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방치하던 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

너구리 : 그렇다면 저 바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구리?

돼지 : 치워버릴까 꿀?

강아지 : 위에 건물을 지을까 멍?

주민들 고민에 빠진다.

아기토끼 : 꼭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!

돼지 : 무슨 소리냐 F등급을 유지하자는 거야 꿀?

강아지 : 그건 안되지!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나 본데!

너구리 : 잠깐만요! 우리 꼬마친구 이야기도 한 번 들어봅시다
어서 얘기해봐라구리!

아기토끼 : 제 말은 바위가 가진 가치를 찾아보자는 거예요!

돼지 : 바위가 가진 가치? 먹지도 못하는데 무슨 가치가 있냐
꿀!

강아지 : 건물을 올리지도 못하는데 무슨 가치가 있어 멍?

아기토끼 : 맛집을 찾는 손님보다, 건물을 사려는 투자자보다 우리가
중요하지

않나요?

엄마토끼 : 그러니까 네 말은 저 바위가 이 마을에 사는 우리를 위한
장치가

될 수 있다는 거야?

아기토끼 : 맞아요! 저는 어른 동물들만큼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...

강아지 : 정작 중요한 걸 내가 잊고 있었던 것 같다 멍...

너구리 : 그래! 맞다구리! 마을을 살아가는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
가장 우선이다구리

엄마토끼 : 이제 누군가 우리에게 이 바위의 가치를 알려주면 좋겠는데...

그 때, 올빼미박사가 빠른 걸음으로 지나간다.

너구리 : 아니! 저분은 올빼미 박사님인것 같은데! 우리 마을의 바위를 연구해줄 수 있으실까구리?

돼지 : 박사님! 꿀! 박사님 꿀!

올빼미 : 무슨 일이시죠?

너구리 : 마을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다구리! 연구를 해달라구리!

박사 : 아 정말입니까? 안 그래도 가치가 있는 것들을 한 참 찾아 헤맸는데 이렇게 만나게되는군요!

아기토끼 : 박사님! 이쪽으로 오세요! 저만 따라오세요

주민들과 박사는 바위로 다가가고 박사 이곳 저곳을 들여다본다.

올빼미 : 아니 이것은!!

너구리 : 뭔데 그러냐구리!

돼지 : 뭐야 꿀!

강아지 : 중요한 바위인가 멍?

엄마토끼 : 췌 다들 들어봐요!

올빼미 : 이 바위는 그냥 보통 바위가 아닙니다! 우리 할머니의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할아버지때부터 이 마을을 지켜내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!

동물들 : 오오오...

올빼미 : 대대로 이 마을의 대표는 이 바위 위에 올라 마을을 바라보며 주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살폈답니다! 심지어 이 바위 뿌리는 땅 속 깊은 곳에서 우리 터전을 받치고 있기도 하죠. 바위가 깨지고 없어지면 우리 마을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말씀!

동물들 : 오오오...

올빼미 : 그래서 그냥 바위가 아니라 마을을 지키는 소중한 보물이

라하여 보석바위로 불리웠던 것입니다!

너구리 : 그렇구나! 바위의 겉모습만 보고 마을에 필요가 없다고
생각했구나구리!

돼지 : 숨어있던 원석을 찾아냈다! 꿀!

엄마토끼 : 우리도 이 보석 바위를 소중하게 여겨야겠는데요?

너구리 : 그래! 보석 바위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자구리!

강아지 : 잠깐만!

너구리 : 왜그러냐구리?

돼지 : 무슨 문제라도...?꿀?

강아지 : 저 바위가 지금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거지?

올빼미 : 대대로 이 마을의 대표는

강아지 : (말을 끊는다) 옛날 얘기 말고!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우
리에게!

무슨 도움을 주냐고 멍!

엄마토끼 : 그거야...

강아지 : 아무리 좋은 원석이라고 해도 다듬어주지 않으면 그저 돌맹
이에 불과하다는거야!

아기토끼 : 우리가 삶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
을까요?

동물들 : 뭐라구?

아기토끼 :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어요!
그렇다면 그런 바위를 어떻게 가꾸어나갈지는 이제 우리의 몫인거죠!

아기토끼, 바위 위에 올라선다. 동물들 모두 화들짝 놀란다.

아기토끼 : 아무런 쓸모 없이 눈으로 보기만 하는, 자리만 차지하는
존재가 아니라! 우리가 삶 속에서 사용하는 유용한 존재로 만들어 가
야죠!

올빼미 : 맞습니다! 여러분! 아기토끼 말처럼 우리 주변에는 옛것이라
하여 그 가치를 찾아볼 기회조차 잃은 채 사라져가는 것들이 너무나
많습니다!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작은 것들도 놓치지 않고 찾는거

죠!

강아지 : 아무런 성과도 없다면 헛된 시간만 버린거잖아..?

돼지 :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을까...?

너구리 :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까..?

아기토끼 : 전 벌써 여기 올라서니 우리 마을이 이전보다 더 잘 보이는데요?

동물들 모두 고민에 빠진다.

엄마토끼 : 바로 이거였어요!

강아지 : 무슨소리야?

돼지 : 어영?

너구리 : 이거라니?

엄마토끼 :우리에게는 마을을 위해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 필요했던 거예요!

돼지 : 맞다 꿀!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은다면 더욱 살기 좋은 마을이 될거다! 꿀!

강아지 : 아하! 바로 그거였구나! 멍!

올빼미 : 앓 잠깐! 바위에 글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!

신비로운 음악♪

'이 바위를 통해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을 찾는 이들에게는 더 큰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'

올빼미 : 맞습니다 이 바위가 있는 이유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의 역할을 하기 위함이었어요!

너구리 : 자 그럼 결정의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구리. 우리마을의 발전을 위해 하나가 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에 찬성하는 분들은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구리!

동물들 박수를치며 웃음이 피어난다.

- 너구리 : 모두가 박수를 치다니 정말 굉장한 일이야구리!!
아기토끼 : 그렇다면 우리 올빼미 박사님과 함께 바위를 연구하고 마을을 발전시켜 나가는 건 어떨까요?
동물들 : 좋습니다! 좋습니다!
돼지 : 그리고 한 달 한 번 이 바위에 모든 주민이 모여 마을 회의를 여는 건 어때?
강아지 : 그것도 좋지 명! 회의뿐 아니라 마을 축제를 열어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도 좋겠어 멍멍!!
너구리 : 자 그렇다면 저는 동물시청으로 가서 바위를 지키기 위한 동물자치위원회 설립을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!
엄마토끼 : 좋아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거예요 맞죠 여러분?

동물들 모두 손뼉을 쳐주며 응원해준다.

- 너구리 : 고맙다구리! 이제 원인도 찾았으니 함께 만들어갈 앞으로의 멋진 앞날을 위해 다같이 건배하자구리!
엄마토끼 : 우리의 마을과!
강아지 : 모두의 행복을!
너구리 : 위하여!
동물들 : 위하여! 하하~
돼지 : 이렇게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함께 마시니 꼭 한 가족처럼 느껴진다! 꿀꿀~

동물들 함께 건배하고 웃으며 조명 아옴.